

초록번호 09-7

제 목	국 문	수원시 지역주민의 대체요법 수용실태 조사		
	영 문	Attitudes toward complementary or alternative Medicine: A regional survey		
저 자 및 소속	국 문	송미숙 <sup>1)</sup> , 전기홍 <sup>1)</sup> , 송현종 <sup>1)</sup> , 박인휘 <sup>2)</sup> , 유승철 <sup>2)</sup> 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6학년		
	영 문	Mi-Sook Song <sup>1)</sup> , Ki-Hong Chun <sup>1)</sup> , Hyung-Jong Song <sup>1)</sup> In-Whee Park <sup>2)</sup> , Seung-Chul Yoo <sup>2)</sup> 1) Dept. of pre. med. Sch. of Med., Ajou Univ. 2) Medical student, Sch. of Med., Ajou Univ.		
분 야	예방의학	발 표 자	송 미 숙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b>1. 연구 목적</b></p> <p>대체요법은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으로서 의학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거나 병원에서 널리 시술되지 않는 예방 및 치료 기술과 방법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해 왔고, 효과가 명확히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현재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많은 환자들이 의사가 권하지 않은 여러 가지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체요법에 대한 순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체요법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환자와 의료진간의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새로운 치료법개발을 위한 임상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개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체요법의 사용유무와 종류, 사용동기, 정보원, 자각효과, 부작용, 소요경비, 권장여부 등에 관한 수용실태를 조사하였다.</p> <p><b>2. 연구 방법</b></p> <p>본 연구는 경기도 일개시 일개구에 거주하는 339가구 1,490명을 대상으로 1998년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연구팀이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표본 추출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접자간의 일치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p> <p>조사대상 표본은 각 동별 경제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3개 동을 선정한 후 「수원시 권선구 통반 설치조례」를 이용하여 각 동별로 총 20개 통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각 통에서 다시 2개 반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p> <p>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별 대체요법 사용실태 및 각 만성질환별 대체요법 사용실태, 대체요법별 효과여부, 부작용 여부, 권장여부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이 사용한 대체요법 종류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t-test와 ANOVA test로서 검증하였다.</p>				

### 3. 연구결과

1) 전체 조사 대상자중 대체요법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6%이었다. 2종류 이하를 사용한 사람은 21.6%, 3-5종류를 사용한 사람은 8.5%, 6종류 이상을 사용한 사람은 5.9%이었으며 평균적으로 3~4종류의 대체요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대체요법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혼자군이, 종교가 없는 군이,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군이 미혼자군, 연령이 낮은 군, 종교가 있는 군,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군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대체요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1,490명의 조사대상자 중 대체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530명 중 10%이상의 대상자(53명)가 사용한 경험이 있는 11개의 대체요법에 대해서만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약이 39.8%로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잡곡류(37.9%), 인삼(23.8%), 보신탕(21.5%), 침술(20.3%), 개소주(15.3%), 나물류(13.8%), 은행열매(12.0%), 버섯종류(11.5%), 부황(10.2%), 흑염소(10.0%)의 순이었다.

4) 특정 만성질환에 사용한 대체요법을 살펴보면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는 침이나 한약을, 당뇨치료에는 잡곡, 누에 요법을, 비만에는 나물류를, 관절염에는 침, 부황, 한약, 뇌졸중에는 침, 한약, 운동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대체요법을 1회 사용하는데 소요된 총 평균 비용은 15,000~150,000원의 범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부작용을 경험한 대체요법으로는 한약, 침술, 개소주가 조사되었으며, 부작용 13개의 사례 중 10개가 한약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6) 대체요법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한 대체요법은 부황(69.6%)이었으며, 그 다음이 침술, 인삼, 은행, 보신탕, 흑염소, 잡곡류, 개소주, 한약, 나물류, 버섯류의 순이었다.

7) '사용했던 대체요법을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잡곡류(84.9%)가 남에게 가장 권장할 만한 대체요법이었으며, 다음으로 인삼, 침술, 은행, 부황, 나물류, 보신탕, 흑염소, 버섯류, 한약 등의 순서였다. 권장안하겠다는 대체요법으로는 한약, 침술, 개소주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4. 고찰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 주민들은 자신들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혹은 치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인이나 의학자들은 이와 같은 일반인들의 대체요법에 대한 요구를 외면한 채 현대의학적인 치료만을 내세우고 있어 일반인들은 어떠한 과학적인 안내없이 무분별하게 대체요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대체요법의 임상적 효과 및 부작용을 밝히는 임상적인 연구 물론 대체요법의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도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